

News Letter

사무실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3층 / Tel : 051-462-7473 / Fax : 051-466-4709

한일터널건설 주장 각계서 잇달아

정정길 대통령실장, 국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긍정 검토” 답변
한일협력위 서울총회, “터널건설 적극 검토에 의견일치” 공동성명

최근 국내에서 한일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달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인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공동 연구를 주장했다.

이어 10월 30일에는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부발연, 일본의 일한터널연구회가 공동개최한 한일해저터널 정책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그 다음날인 10월 31일 국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시 갑) 의원이 한일해저터널 사업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한일 양국의 정계, 재계 주요 인사들로 이루어진 ‘한일·일한 협력위원회’는 12월 1일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유의하고 금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하여 양국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한일 양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러일으켰다.

이같은 주장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일터널 건설이 일부에서 공론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일터널 건설 주장들

은 발언의 주체가 재벌총수에서부터 관변단체, 정치인, 한일 전직 국무총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 등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한일터널 건설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4면>*

내년도 사업·예산 통과



11월 17일 정기이사회서 이우봉씨 새 이사로 영입 허문도, 고관서 고문 추대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공동대표 서의택, 이용흥)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6시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신빌딩 3층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사진 위)를 열고 이우봉씨(전 매일신문 편집국장)를 신임이사로 임명승인했다. 또 한일터널추진위원회 허문도 위원장(전 통일부장관)과 고령

을 이유로 이사직에서 물러난 고관서 전 선문대부총장을 각각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가 결산심의 및 보고시기와 일치하도록 하기위해 2009년 1월 30일에 정기총회를 갖도록 하는 등 정관 7개항의 자구를 수정, 통과시켰다. <4면에 수정내용> 또 2009년도 국제심포지엄개최, 조찬포럼 4회 개최, 해외교류 2회 실시 등의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 5천2백만원을 원안대로 의결, 통과시켰다. *

한일 협력위 “한일터널 건설 적극 검토” 공동성명 발표

“한일터널이 장기적으로 동북아 통합에 큰 역할” 주장
남덕우, 나카소네 전 총리 등 양국 주요인사 70여명 참석

한국과 일본의 전직 국무총리 등 양국의 정계, 재계 주요 인사들로 이루어진 ‘한일·일한 협력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트 홀에서 제44회 총회를 열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 측 회장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 일본 측 회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걸친 실천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의 건설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유의하고 금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하여 양국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해저 터널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의 메시지를 통해 “1969년 한일 간 민간외교채널로는 가장 먼저 구성된 ‘한일·일한 협력위원회’가 차세대 지도자를 초청하여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등 양국 간 우호관계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도 축하메시지를 통해 “일한관계를 성숙한 파트너십관계로 확대시켜 아시아의 2대 선진국으로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긴밀히 연대하여 아시아 태평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측 대표단이 12월 1일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일한 양국이 함께 발전해가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초래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협력하고 한일 FTA교섭재개촉구, 북한 핵 공동대응, 양국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 했다. *

‘해저터널 국제심포지엄’ 11월 14일 서울서 열려

후지하시 상임이사 발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최한 ‘해저터널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일한터널연구회 겐지 후지하시 상임이사는 “일본 규슈 북부와 쓰시마 섬을 거쳐 한국의 부산에 이르는 220km 구간의 해저 터널 건설에 7~10년이 걸리며 10조 엔의 건설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인물

신임 이우봉 이사

△ 1949년생
△ 마산고, 서울대 문리대 동양사학과 졸업 △ 부산매일 편집국장, 논설위원, 이사 역임 △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역임 △ 센텀시티(주) 대표이사, 상무 이사 역임 △ 현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 상근감사



“한일터널 예비타당성조사 용의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국감에서 밝혀
한나라 김정권 의원 질의에 답변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지난 10월 3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일해저터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경남 김해갑)이 “한일해저터널은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판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의 검토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질의를 한 김의원은 “대통령실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공언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한일터널 연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가차원으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정 실장의 이같은 국감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한일터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많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정 실장의 국감답변을 ‘질의자를 배려한 답변’ 또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



정정길 대통령 실장

윤영 의원, “한일터널 해볼만한 사업”

온라인신문과 인터뷰에서 “거제로 연결돼야” 주장

한 나라 당 윤영의원(경남 거제)이 지난 12월 3일 온라인신문인 ‘뉴스앤뉴스’와 가진 인터뷰



윤영 의원

에서 한일해저터널은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었음을 상기시킨 뒤 “(한일터널은)부산 보다는 일본에서 더 가까운 거제로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어느 루트가 되든지) 한일해저터널은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뉴스앤뉴스에 따르면 윤의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큰 이득을 본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영불터널의 경우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더 사업에 의욕을 보였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됐

다. 거의 2백조원 사업인데 우리에게 경제 활성화면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비 문제에 대해 “터널 길이 만큼씩 공사비를 분담하면 되나 일본에서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우리나라가 터널비용

의 약 25% 정도 부담하고 일본이 75% 정도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이 일본에게 대륙진출의 길만 터준다면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요새 같은 세상에 일본이 (터널을 통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이 가능한 이야기냐”며 일축했다. *

내년 1월 30일 롯데호텔서 정기총회

정회원 2백명까지 확대키로
일반 시민대상 가입신청 받아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공동대표 서의택, 이용흥)는 2009년 1월 30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한일터널연구회는 또 현재 41명인 정회원 숫자를 2009년에는 2백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회

원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회원 가입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일터널건설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된다.

가입 희망자는 본회 사무국(051-462-7473)으로 연락하면 된다. *

유럽 - 아시아 해저터널... SK건설이 뚫는다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 길이 5.4km

SK건설이 터키 교통부 산하 건설국에서 10억달러 규모 이스탄불 해저터널 프로젝트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12월 5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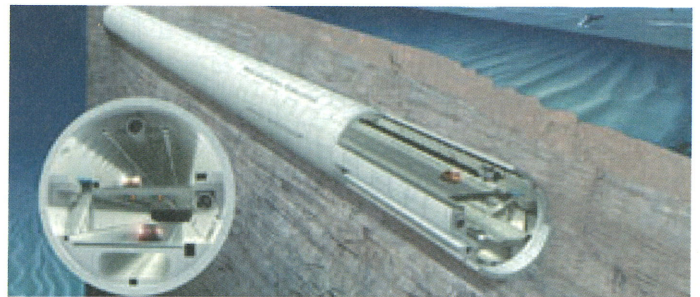
이 터널은 터키 이스탄불시(市)를 동과 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나누고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 지하를

지나는 5.4km 길이 해저터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스포루스 해협 지하를 뚫어 이스탄불 아시아 쪽인 아나톨리안 사이드와 유럽 쪽인 유러피안 사이드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을 만든다. 접속도로를 포함하면 총 공사 구간은 14.6km에 달한다.

시공지분 26%를 갖는 SK건설은 터키 업체인 야피메르케지, 국내 업체인 극동건설 남광토건 한신공영 삼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계약 체결 후 55개월이다. *



보스포루스 터널 구간



터널 단면도

◇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정관 변경 및 일부 자구 정정

정관조문	현 행	수 정(안)	사 유
제13조 제4항	④ 고문은 전임대표 또는 전임이사, 감사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④ 고문은 본회 전임 임원으로서는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와 사회저명인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창립초기부터 필요한 고문 위촉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제18조 제1항	① 이사장과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① 공동대표인 이사장과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누락된 자구 삽입 “공동대표”
제18조 제2항	② 이사는 이사회의 출석하여...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오자정정 “의” → “에”
제22조 제2항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이내에 소집하며...	불합리한 총회 소집시기 조정
제28조 제2항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이내에 소집하며...	정기총회 시기와 일치하게 조정
제29조 제2항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오자정정 “권” → “궐”
제30조 제1항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을 의결할 수 있다.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오자정정 “을” → “으로”

社団法人 韓日トンネル研究会 2008年12月23日

News Letter 第7号

日韓トンネル建設の主張、各界で相次ぐ

鄭正佶(チョン・ジョンギル)大統領室長、国政監査で「予備妥当性調査、肯定的に検討」答弁

日韓協力委員会ソウル総会、「トンネル建設、積極検討に意見一致」共同声明

最近、国内で日韓トンネル建設の必要性を主張する各界の声が相次ぎ、国民の関心を集めている。

去る10月10日、朴三求(パク・サムグ)錦湖アジアナグループ会長が、韓国と日本の主要経済人12名が参席した会議で、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のための共同研究を主張した。

続いて10月30日には、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釜山発展研究院、日本の日韓トンネル研究会が共同開催した日韓海底トンネル政策セミナーが釜山で開かれた。

その翌日、10月31日、国会の大統領室国政監査でハンナラ党・金正権(キム・ジョングオン、金海市・甲)議員が日韓海底トンネル事業の妥当性検討の必要性について尋ねると、鄭正佶大統領室長が「肯定的に検討する」と返答、政界等で大きな関心と呼んだ。

続いて、日韓両国の政界、財界の主要人士で構成される「韓日・日韓協力委員会」は12月1日にソウルで総会を開き、「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が、長期的に東北アジアの統合過程において大きな役割を果たす可能性があることに留意し、今後専門家らの研究を通して両国内でこの問題を積極的に検討していくことで意見の一致をみた」という内容の共同声明を発表、日韓両国で大きな反響をよんだ。

このような主張が言論報道を通して広く伝えられ、インターネット等で賛否両論をよんでいる等、日韓トンネル建設が一部で公論化される様相をみせている。

特に最近の日韓トンネル建設の主張は、発言の主体が財閥総帥から政府系団体、政治家、日韓前職国務総理が共同代表としている団体等という点で今まで散発的に提起された日韓トンネル建設の主張とは性質が違い、その波紋も大きいとみられる。＜関連記事 2,4 面＞

来年度事業・予算通過

11月17日定期理事会でイ・ウボン氏 新理事に迎え入れ

ホ・ムンド（許文道）、コ・カンソ（高冠瑞）顧問推戴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共同代表、徐義澤・李龍欽）は、去る11月17日午後6時、釜山東区草染洞一信ビル3階会議室で定期理事会（写真上）を開き、イ・ウボン氏（前毎日新聞編集局長）を新任理事として任命承認した。また、韓日トンネル推進委員会の許文道委員長（前統一部長官）と、高齢を理由に理事職から退いた高冠瑞・前鮮文大副総長をそれぞれ顧問に推戴した。この日の理事会では、定期総会を決算審議および報告時期と一致させるために2009年1月30日に定期総会を行う等、定款7項目の字句を修正、通過させた。＜4面に修正内容＞ また、2009年度国際シンポジウム開催、朝食フォーラム4回開催、海外交流2回実施等の主要事業計画と予算5千2百万ウォンを原案通りに議決、通過させた。

日韓協力委員会「日韓トンネル建設、積極検討」共同声明発表

「日韓トンネルが長期的に東北アジア統合に大きな役割」主張

南恵祐（ナム・ドクウ）、中曽根前総理等、両国主要人士70余名参席

韓国と日本の前職国務総理等、両国の政界、財界の主要人士で構成された「韓日・日韓協力委員会」が去る12月1日、ソウル鍾路区新門路、錦湖アートホールで第44回総会を開き、「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積極的に検討していく」という内容が盛りこまれた共同声明を発表した。

この日の総会には、韓国側の会長である南恵祐・前国務総理、日本側の会長である中曽根康弘・前日本総理等70余名が参席した。

この委員会はこの日、「東北アジア地域の統合を促進するために政治・経済・文化の各分野にわたった実現方策に関して継続して研究する」という方針を決め、「両国を繋ぐ海底トンネルの建設が長期的に東北アジアの統合過程において大きな役割を果た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に留意し、今後専門家の研究を通して両国内でこの問題を積極的に検討していくことで意見の一致がみられた」と発表した。

両国の主要人士たちがこのような内容を推進するとしたことによって日韓海底トンネルの論議が本格化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

一方、この日の総会で李明博大統領は祝賀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1969年の日韓間民間外交チャンネルでは最も先に構成された「韓日・日韓協力委員会」が次世代の指導者を招請し、相互理解を深める等、両国間の友好関係の発展のために多く寄与した」と評価した。

日本の麻生太郎総理も祝賀メッセージを通し「日韓関係を成熟したパートナーシップ関係に拡大し、アジアの2大先進国として金融危機に対しても緊密に連携し、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定と繁栄をなし、日韓両国が共に発展していこう」と話した。

委員会はまた、全世界的金融危機でもたらされた難局を克服するために、両国がさらに協力し、日韓 FTA 交渉再開要求、北朝鮮の核共同対応、両国交流拡大等の内容のため更に努力することを決議した。

「海底トンネル国際シンポジウム」

11月14日ソウルで開かれる

藤橋常任理事発表

韓国地質資源研究院主催

韓国地質資源研究院が主催した「海底トンネル国際シンポジウム」が去る11月14日、ソウルで開かれた。

こ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た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藤橋健次常任理事は「日本の九州北部と対馬を経て韓国の釜山に至る220km区間の海底トンネル建設に7～10年要し、10兆円の建設費用がかかると推定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

人物

新任イ・ウボン理事

△1949年生 △馬山高、ソウル大文理大東洋史学科卒業 △釜山毎日編集局長、論説委員、理事歴任 △東亜大新聞放送学科講師歴任 △センタムシティー㈱代表理事、常務理事歴任 △現、北港アイブリッジ株式会社常勤監査

「日韓トンネル予備妥当性調査用意ある」

鄭正佶大統領室長が国政監査で明らかに

ハンナラ党・金正権議員が質疑に答弁

鄭正佶大統領秘書室長(写真)が去る10月31日、大統領室に対する国会運営委員会の国政監査で「日韓海底トンネルの予備妥当性調査を実施する用意は無いのか」という質疑に「日韓海底トンネルに対する予備妥当性調査をする用意があり、積極的に検討する」と答弁した。

言論報道によると鄭室長はこの日、金正権議員(ハンナラ党・慶尚南道金海・甲)が「日韓海底トンネルは、必要性および可能性について賛否両論が対立しているので、客観的な判断のための体系的な研究が必要だ」とし、「政府レベルで予備妥当性調査レベルの検討のために予算を投入する意向は無いのか」という質疑に、そのように答えた。

これに対し、質疑をした金議員は「大統領室で日韓海底トンネルに対して公式的な立場を明らかにしたり、予備妥当性調査の実施を公言したのは初めて」で、「これは日韓トンネルの連結問題に対する論議を国家レベルで公式化したということに意味がある」と主張したと言論は報道した。

しかし、鄭室長のこのような国政監査発言にもかかわらず政府レベルの日韓トンネル建設の予備妥当性調査が早い時期に実施されるとみる意見は多くない。政界では鄭室長の国政監査答弁を「質疑者を配慮した答弁」もしくは「儀礼的な答弁」と受け取っている雰囲気だ。

ユン・ヨン議員、「日韓トンネルやってみる価値はある事業」

オンライン新聞とインタビューで「巨済に連結されなければ」主張

ハンナラ党の運営議員(慶尚南道巨済)が去る12月3日、オンライン新聞である「views&news」とのインタビューで、日韓海底トンネルは自身が去る総選挙で掲げた公約であったのを想起させたあと「(日韓トンネルは)釜山よりは日本とより近い巨済に連結されるのが妥当だ」とし、「しかし(どのルートになるとしても)日韓海底トンネルは十分にやる価値がある事業と語った。

views&newsによると、ユン議員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で)韓国より日本がより多くの利得を得るという意見があるが、英仏トンネルの場合イギリスではなくフランスがより事業に意欲を見せ、実際にそのように推進された。ほぼ2百兆ウォンの事業だが、我々に経済活性化の面で非常に助けになるだろう」と話した。

氏はまた、工事費の問題に対して「トンネルの長さの分、工事費を分担すればいいが、日本がより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理もある。韓国がトンネル費用の約25%程度負担し、日本が75%程度負担する方式になるという研究結果もある」と紹介した。

ユン議員は、日韓海底トンネルが日本に大陸進出の道を開いてやるだけだとして反

対する一部の世論に対して「近頃の世の中で、日本が(トンネルを通して)韓国を侵略できるというような話が可能な話か」と一蹴した。

来年 1 月 30 日 ロッテホテルで定期総会

正会員 2 百名まで拡大
一般市民対象の加入申請受ける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共同代表徐義澤・李龍欽)は 2009 年 1 月 30 日、釜山の西面ロッテホテルで定期総会を開く。

韓日トンネル研究会は、現在 41 名の正会員を 2009 年には 2 百名まで拡大することにし、一般市民を対象に公開して会員加入申請を受けることにした。

正会員の加入資格は特別な制限をおいておらず、日韓トンネル建設を支持する人であればよい。

加入希望者は本会事務局(051-462-7473)に連絡すればよい。

ヨーロッパアジア海底トンネル…SK 建設が掘る

ボスポラス海峡通過長さ 5.4km

SK 建設が、トルコ交通部傘下の建設局から 10 億ドル規模のイスタンブール海底トンネルプロジェクト事業の権利を獲得したと 12 月 5 日毎日経済が報道した。

このトンネルは、トルコのイスタンブール市を東と西、ヨーロッパとアジア大陸に分けているボスポラス海峡の地下を通る 5.4km の海底トンネルだ。今回のプロジェクトはボスポラス海峡の地下を掘り、イスタンブールのアジア側であるヨーロッパサイド地域を繋ぐトンネルを作る。接続道路を含めると、総工事区間は 14.6km に達する。

施工持分 26%をもつ SK 建設は、トルコの企業である Yapi Merkezi、国内企業である極東建設、南光土建、韓信公営、三煥企業とコンソーシアムを構成し参与する。来年の上半期中に契約を締結する計画だ。工事期間は契約締結後 55 ヶ月だ。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定款変更および一部字句訂正

定款 条文	現行	修正(案)	事由
第 13 条 第 4 項	④顧問は専任代表または専任理事、監査として本会の発展に功労がある者のうち理事会の推薦で推戴する。	④顧問は本会専任役員として本会の発展に多大な功労がある者と社会著名人士で本会の目的に積極的に賛同する者で理事会の議決を経て推戴する。	創立初期から必要な顧問委嘱が可能にするため
第 18 条 第 1 項	①理事長と会長は本会を代表し...	①共同代表である理事長と会長は本会を代表し...	抜けた字句挿入 「共同代表」
第 18 条 第 2 項	②理事は理事会の出席し...	②理事は理事会に出席し...	誤字訂正 「의」→「에」
第 22 条 第 2 項	②定期総会は毎会計年度開始 1 ヶ月前までに招集し...	②定期総会は毎会計年度開始後 1 ヶ月以内に招集し...	不合理な総会招集 時期調整
第 28 条 第 2 項	②定期理事会は毎会計年度開始 1 ヶ月前までに招集し...	②定期理事会は毎会計年度開始後 1 ヶ月以内に招集し...	定期総会時期と一 致するよう調整
第 29 条 第 2 項	②理事会招集権者が권위されたり	②理事会招集権者が欠員したり...	誤字訂正 「권위」→「결위」
第 30 条 第 1 項	①…緊急を要する事項に対してはこれを書面を議決することができる	①…緊急を要する事項に対してはこれを書面で議決することができる	誤字訂正 「을」→「으로」